

靜齋 李聃命의 流配 체험과 <思老親曲 十二章>의 구조적 특성*

이승준**

차 례

1. 서론
2. <思老親曲 十二章>의 시간성과 流配 인식
3. 李聃命의 流配 체험과 <思老親曲 十二章>의 주제의식
 - 3.1. 昌城 流配期(1~8수): 解配의 難望과 老母에 대한 念慮
 - 3.2. 藍浦 移配期(9~12수): 解配의 期望과 老母에 대한 慰勞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의 목적은 靜齋 李聃命의 유배 체험을 토대로 <思老親曲 十二章>의 구조적 특성을 조망하는 것이다. 이는 유배 시가의 사적 전개를 살필 수 있는 작품으로서 주목받아 온 <사노친곡 12장>에 대한 작품론적 이해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 시가사적 위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사노친곡 12장>은 이담명이 甲戌換局으로 인하여 昌城으로 유배를 가서 1697년에 창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이 작품은 효를 주제로 한다는 점, 연시조로서 장간의 구성력이 약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선 후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교량적 작품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선행 연구의 이해는 작품의 구성적 특성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사노친곡 12장>의 창작 배경과 관련한 이담명의 유배 생활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담명의 유배 생활은 크게 昌城 流配期와 藍浦 移配期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모친과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19)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 관계를 보면, 창성 유배기에 그는 해배의 전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였다. 그러나 평안도와 함경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유배자의 이배가 결정되었고, 이담명 또한 남포로 이배되며 극적으로 모친과 재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사노친곡 12장>의 구성적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배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노친곡 12장>의 주제구현방식을 살펴보면, '해배(노친과의 재회)를 기약할 수 없음 → 유배의 처지를 수용함 → 해배(노친과의 재회)를 기다림'의 구성적 맥락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사노친곡 12장>이 장 간의 유기적 결합력은 약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구성 방식 아래 창작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이담명의 유배 생활에 따른 모친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이담명은 남포 이배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간 모친을 그리워 하며 창성 유배기와 같은 우울한 심사를 피력하곤 하였다. 이러한 점은 그에게 창성과 남포 유배 생활이 모친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층위에서 포괄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어 : 靜齋 李聃命, 流配 체험, 流配詩歌, <思老親曲 十二章>, 聯詩調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靜齋 李聃命(1646~1701)의 流配 체험을 토대로 <思老親曲 十二章>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노친곡 12장>은 이담명이 1694년 甲戌換局으로 함경도 昌城에 유배를 간 이후, 고향에 있는 老母를 그리워하며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주지하듯 이담명은 17세기 肅宗 연간 南人 세력을 대표하였던 廣州李氏 가문의 일인으로서 부친인 李元禎(1622~1680)과 함께 17세기 당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¹⁾

그러나 이담명의 정치적 위상과는 달리 <사노친곡 12장>에 대한 학계의 관

1) 李聃命을 비롯하여 칠곡 광주이씨 가문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 문택, 「숙종 대 이원정의 정치활동과 피화」, 『조선 후기 당쟁과 광주이씨』, 지식산업사, 2011, 257~288쪽.; 이근호, 「17세기 후반 이담명·이한명의 정치활동과 경세론」, 위의 책, 291~329쪽.

심은 비교적 소략한 편이다. 流配時調이자 思親曲 계열의 이 작품은 심재완에 의해 학계에 소개²⁾된 이후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³⁾, 김상진에 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그 결과 <사노친곡 12장>은 각 장 간의 순차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유기적 연결체로서 聯詩調가 지니는 정형성이 약하며, 이는 조선 후기 연시조의 경향과 일치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孝’ 중심의 주제의식은 ‘戀君’을 주제로 하는 일반적인 유배 문학과는 변별적이며, 이는 개인적 차원의 주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 流配詩歌의 흐름과 관계된다는 점 등이 함께 주목되었다.⁴⁾

김상진의 논의는 무엇보다 <사노친곡 12장>의 시가사적 위상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노친곡 12장>을 이담명의 유배 기⁵⁾와 결부하여 17~18세기 연시조 및 유배 시조의 흐름을 반영한 작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각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사노친곡 12장>의 구성을 <陶山十二曲>의 磁場에 놓인 六歌系 연시조의 영향 속에서 검토한 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현재 작품의 창작 동기를 확정할 만한 序文이 남아 있지 않고, 題名 또한 이담명이 지은 것으로 이해할 만한 역사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사노친곡 12장>이 <도산십이곡>의 자장에 놓인 작품이라면, 이 작품이 육가계 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난 동인 역시 문제적이다. 18세기에는 남인 계열 사대부에 의해 <도산십이곡>의 정형성을 답습한 육가계 시조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었다.⁶⁾ 따

2) 慕山沈, 「思老親曲十二章考」, 『도남조윤제박사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이 논문은 이후 다음 책에 재수록 되었다. 심재완, 『慕山沈載完博士文集』 2권, 慕山學術研究所, 2013, 429~450쪽.

3) <사노친곡 12장>은 심재완에 의해 소개된 이후, 정명세에 의해 『靜齋先生文集』의 서지 사항과 함께 간단히 언급되었다. 정명세, 「古時調文獻의 研究: 歷代時調全書 未收錄의 新資料를 對象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40~43쪽.

4) 김상진, 「이담명(李昡命)의 <사노친곡12장(思老親曲12章)> 고찰」, 『韓國 詩歌研究』 40, 한국시가학회, 2016, 119~147쪽.

5) 이담명은 1694~1699년까지 유배에 처했다.

6)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안서우의 <楡院十二曲>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용찬, 「안서우의 생애와 시조 창작 배경」, 『한국시가문화연구』 37, 2016, 33~65쪽.

라서 정작 鶴峯 金誠一(1538~1593)의 學統 아래 남인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한 광주이씨 가문의 이담명에게 <도산십이곡>의 정형성이 약화된 작품이 출현한 이유를 상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김상진의 입론을 토대로, 최근 권현주는 이담명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이담명이 유배를 가기까지의 정치적 동향을 ‘盛衰’의 구도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사노친곡 12장>의 주제의식이 효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복귀, 즉 남인 세력의 융성기가 다시 도래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적하였다.

권현주의 논의는 무엇보다 <사노친곡 12장>의 창작 배경과 관련한 구체적 인 시기를 1697년 1~3월 사이로 특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작품의 구성적 특성을 육가계의 독법에서 벗어나 내용적 측면에서 분류를 시도하였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⁷⁾ 다만 작품의 독법을 정치적 역학 관계로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노친곡 12장>의 문면을 지배하는 ‘효’에 대한 문제의식을 약화시킨 점, 나아가 내용적 분류 체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도산십이곡>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보인다.

이처럼 <사노친곡 12장>에 대한 선행 연구의 논의는 작품의 시가사적 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달리, 연시조로서 구성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17~18세기의 시가사적 구도에서 작품의 구성적 특성을 살펴보는 시각은 논리의 정합성만큼이나, 환원론적 접근 방식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 또한 있다. 따라서 <사노친곡 12장>의 시가사적 위상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구성적 맥락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노친곡 12장>이 이담명의 유배 생활과 모친을

7) 권현주의 논의는 양희철의 <도산십이곡> 분석 관점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권현주, 「靜齋 李聃命의 盛衰와 <思老親曲> 12章에 나타난 復歸에 대한 念願」, 『국어교육연구』 73, 국어교육학회, 2020, 73쪽.; 양희철, 「이황의 <도산십이곡>」, 『연시조 작품론 일반』, 도서출판 월인, 2016, 183~250쪽.

향한 효심에 기반을 둔 작품이라는 점을 다시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작품의 창작 맥락과 관련한 원론적 층위의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이담명의 유배 생활이 균일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그는 평안도 창성에서 4년간의 유배 생활을 한 이후, 다시 量移되어 충청도 藍浦에서 3년간 유배 생활을 하였다. 주지하듯 양이란 죄를 감등하여 配所를 옮긴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남포 이배 이후 유배 생활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노친곡 12장>의 주제인 ‘효’가 유배에 대한 이담명과 모친의 시선을 전제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창성 유배기에 이담명은 解配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이담명과 노친이 생전에는 재회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절망적이었다. 반면 남포 이배는 해배에 대한 일종의 기대심리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계기가 되었다.

창작 배경과 관련한 이담명의 유배 생활에 대해 선행 연구는 창성 유배기로 확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사노친곡 12장>에 나타난 시간 성과 『靜齋先生文集』에 수록된 姜楷의 行狀에서 <사노친곡 12장>을 지었다는 기록이 閏 3월의 사건 이전에 서술된 점 등을 주목하였다.⁸⁾ 그런데 실제 행장을 보면 <사노친곡 12장>의 창작 시기를 명확히 확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년간의 창성 유배 생활 중에 일어난 사건 중 하나로 언급할 뿐이다.⁹⁾

8)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행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담명, 『靜齋先生文集』, <行狀> “作思老親曲十二章, 辭甚淒惋. 丁丑閏三月, 上憫旱,” 권현주, 앞의 논문, 277쪽.

9) 그의 유배 생활과 관련하여 閏 3월을 강조한 이유 또한 남포 이배의 계기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였다. 윤 3월 이전의 내용은 창성 유배기 동안 이담명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행장> 西戌四年, 常閉門, 深處一室, 訓課小子, 觀玩書籍而已, 知舊問書疏往復亦稀. 嘗作思老親曲十二章, 辭甚淒惋. 丁丑閏三月, 上憫旱, 命疏釋在繫者, 大臣柳宰持囚案進對, 上問李某罪名云何. 柳頷相尙運對曰, 以主論爲罪而未必然也, 但於其儕流問望重, 故人以爲主論也. 知義禁申院曰, 合啓以傷人害物爲言, 此人心事, 不必有傷人害物之意矣. 尙運又曰, 此人所遭與他人異, 直以傷人害物爲罪, 非所以原其情也, 上命減等量

게다가 강해의 <행장>을 바탕으로 6세손인 李懿秀(1829~1911)가 지은 <家狀>에는 <사노친곡 12장>을 4년 동안의 유배 생활 중 지어 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적이다. 이러한 점은 <사노친곡 12장>의 창작 시기가 문중 내에서도 정확하게 고증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는 바, 작품과 관련한 서발문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⁰⁾

따라서 작품의 창작 시기는 문집에 수록된 後人의 기록에 의거하기 보다는 작품의 내용과 이담명의 유배 체험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¹¹⁾ 이에 본고에서는 <사노친곡 12장>의 창작 시기를 둘러싼 외연의 문제를 이담명의 유배 체험과 작품을 비교하여 확정하고, 나아가 <사노친곡 12장>이 지니는 연시조로서의 특성에 대한 독법을 마련함으로써 그 시가사적 위상을 검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思老親曲 十二章>의 시간성과 流配 인식

<사노친곡 12장>의 창작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 지표들을 최대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사노친곡 12장>의 창작 배경을 살필 수 있는 서발문이 전하지는 않는다. 다만 작품에는 창작 시기를 추론할 만한 기록과 함께 유배에 대한 이담명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移, 公得內徙藍浦.

10)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행장> 及四月 朝著一變 新得路者最嫉公 必欲陷之 勒公以向時主張論議者 竄于昌城 公卽迥然就道曰 禍福天也 及到配 寄書家人曰 吾非以死生爲戚戚者 但遠離老親 復踏關西路 此爲痛切耳 又作思親曲十二章以傳 辭甚悽惋 謫居四年 觀書訓子 不出門外 知舊書疏往復亦稀

11) 창작 시기와 관련한 콘텍스트의 구성 문제를 작가의 유배 체험과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는 작업은 서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효한 방법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申欽의 <放翁詩餘> 창작 시기 문제를 다룬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성기욱, 「申欽 時調의 해석 기반」, 『진단학보』 81, 진단학회, 1996, 228~240쪽.

	작품 ¹²⁾	시간성	유배 인식 (老母와의 재회)	
1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풀고 또 풀으니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같이 어느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뵈오려노	봄	인식	부정적
			이유	모친과의 재회가 아득함
2	親年은 七十五 오 嶺路는 數千里오 도라갈 期約은 가디록 아득하다 아마도 즈 읍슨 中夜의 눈물계워 설웨라	1697년	인식	부정적
			이유	해배를 기약할 수 없음
3	길히 머다 하다 나면 아니 가라터나 돌이 과려하다 틈면 아니 네라터나 가고 넌 後 면 老母歸寧홀 일이다 過臻于衛인마는 不遐有害라 이를 저퍼호 노라	미상	인식	부정적
			이유	모친과의 재회가 아득함
4	謫裏光陰은 四年이 벌써 되고 天外家鄉은 萬里에 아득하니 몸이 못 가 거든 奇別이나 드르디야 아무리 陟記瞻望을 말랴 혼들 어들손가	1697년	인식	부정적
			이유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없음
5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難將寸草心 報得 三春暉 人情이 懇切하니 鬼神인들 아니 올가 至今의 이 詩 이 뜻은 읊홀소록 슬페이다	미상	인식	부정적
			이유	부모를 떠나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음
6	기력이 아니 느니 片紙를 뉘 傳호리 시름이 7득하니 꿈인들 이룰손가 每日의 老親 얼굴이 눈이 森森호야라	미상	인식	부정적
			이유	모친께 소식을 전할 수 없음
7	東山の 올라 보니 故國도 멀서이고 太行이 어드메오 구름이 머호레라 갈스록 愛日寸心이 如臨深淵호여라	미상	인식	부정적
			이유	모친과의 재회가 아득함
8	天涯 絕域의 새히를 네 번 보니 寸草深情은 니르도 말려니와 아마도 鶴髮倚闌을 어이호야 慰勞홀고	1697년	인식	부정적
			이유	모친과의 재회를 기약할 수 없음
9	有難赦罪難醫疾 爲不忠臣不孝男 蘇齋 이 句 를 이제록 불작시면 늬이 아니라 날을 니른 말이로쇠	미상	인식	인식의 전환
			이유	유배의 처지를 수용함

	작품 ¹²⁾	시간성	유배 인식 (老母와의 재회)	
10	내 罪를 아옵거니 流竄이 薄罰이라 到處 聖恩을 어이흐야 갑스올고 老親- 플터 헤시고 하 그려 마오쇼셔	미상	인식	인식의 전환
			이유	유배의 처지를 수용함
11	하늘이 높흐시나 느즌 디를 드르시니 日月이 잣가오샤 下土의 비최시니 아므리타 우리 母子之情을 슬피실 제 업 스오라	미상	인식	긍정적
			이유	해배를 기대함
12	가치 울거나 거의 누리거나 燈花 열리거나 ... 아마도 반가운 奇別을 어니 旣에 드르려노	미상	인식	긍정적
			이유	해배를 기대함

먼저 1, 2, 4, 8번 작품을 통해서 <사노친곡 12장>의 창작 연도를 가늠할 수 있다. 1번은 봄 즉 立春이 지난 시기에 이 작품이 창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2번은 노모의 나이가 75세임을 밝히고 있다. 이담명이 유배를 온 1694년 당시 노모는 72세였던 것을 보면,¹³⁾ 1697년 입춘이 지난 시기에 이 작품이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4번과 8번에서도 각각 ‘謫裏光陰은 四年이 불셔 되고’, ‘天涯 絕域의 새희를 네 번 보니’ 등을 통해 이담명이 유배를 온 1697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노친곡 12장>은 1697년 입춘이 지난 시점에 창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1~8수까지 이담명이 유배를 대하는 인식, 특히 노친과의 재회를 향한 인식이 부정적인 구도로 집철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배지는 이담명에게 노친과 재회할 수 없는 곳(1, 3, 7, 8번),¹⁴⁾ 해배를 기약할 수 없는 곳(2번), 고향(노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곳(4번), 부모를 떠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곳(5번), 모친께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곳(6번) 등으로 인식되어 있다.

12) 본고에서 다룬 <사노친곡 12장>은 『고시조대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김홍규 외 6인,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13)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謫所送兒時 識懷> “甲戌孟夏, 余謫昌城, 冥頑危喘, 更踏此路. 去鄉關二千里 而 慈親時年七十二, 人間此生, 相見無期.”

14)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작품의 품번을 부기한다.

이러한 서술은 思親의 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적 전략이면서도 동시에 갑술환국의 여파로 인하여 해배를 장담할 수 없었던 역사적 정황을 반영한 듯하다.¹⁵⁾ 특히 부친 이원정 또한 경신환국으로 유배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불려와 杖殺 당하였던 사실은 이담명의 유배 생활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¹⁶⁾

그런데 <사노친곡 12장>에 나타난 유배 생활에 대한 이담명의 인식은 9번 작품을 기점으로 전환이 발생한다. 노친과의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문체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비애의 정서는 유배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며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유배가 철저히 부정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공간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이다.(9, 10번) 급기야 이담명은 유배지에서 모친과의 재회를 기대(11번)하는 한편, 해배를 기다리는 심정(12번)을 문면에 노출시키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간다.

따라서 유배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노친곡 12장>의 주제구현방식을 살펴보면, ‘해배(노친과의 재회)를 기약할 수 없음 -> 유배의 처지를 수용함 -> 해배(노친과의 재회)를 기다림’의 구성적 맥락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사노친곡 12장>이 장 간의 유기적 결합력은 약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구성 방식 아래 창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작품 구성이 가능한 동인은 유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노친곡 12장>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배를 와서 모친과 재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다가, 유배의 상황을 수용하고 해배를 기원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형성된 동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작품이 이담명의 유배 체험과 강하게 긴박되어 있다는 전체를 고려한다면, 6년 동안 이어진 이담명의 유배 체험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의 필

15) 庚申換局을 시작으로 갑술환국에 이르는 이담명의 정치적 부침에 대해서는 권현주의 논문에 자세하다. 권현주, 앞의 논문, 275~295쪽.

16) 이담명이 창성으로 유배를 갈 당시와 이후의 심정은 『정재선생문집』에 수록된 서간과 제문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정재선생문집』에 수록된 서간과 제문 등을 토대로 유배 생활 동안 이담명의 심정 변화를 추적해보고, 이를 작품의 구성적 맥락과 대응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李聃命의 流配 체험과 <思老親曲 十二章>의 주제의식

3-1. 昌城 流配期(1~8수): 解配의 難望과 老母에 대한 念慮

이담명의 유배 체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694년 갑술환국 당시의 심정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이담명은 환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지만 정작 유배 자체는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말았다. 따라서 자신의 신변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도성 밖에서 대기하다가 왕명을 받고 바로 유배지인 창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당시 그의 심정을 살필 수 있는 기록으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만하다.

어머님을 모시는 여러 상황은 어떠한가? 매일 그립고 또 그립네. 지금 조정은 갑작스럽게 변하여 大臣 이하는 모두 削黜 되었고, 나 또한 譴罰을 면하지 못할 듯하네. 곧장 말을 달려 돌아가 모친의 얼굴을 한번 뵈고 오고자 하나 이 또한 감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오직 席藁하여 기다리고 있을 뿐이네. 그대가 홀로 어머님 곁에 있으니 무슨 말로써 모시고 위로드릴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내가 어찌 지금 생존해 있겠는가? 죽을 것이면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요, 다시 天日을 보고 억울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니 무엇을 근심할 게 있겠는가마는, 다만 연로한 어머니께 염려를 끼칠 것이 슬플 뿐이라네. (중략) 다시 생각해보면 지난번엔 비록 報雪이 절실하였으나 또한 오로지 義理로써 스스로를 지탱하고 조금도 僭濫한 일이 없었으니, 이 일의 바탕은 귀신이 한 것임을 의심할 것이 없네.

來世를 기다리면 할 말이 있을 것이니, 만약 노친께서 근심함을 놓지 못하신다면 바라건대 조용히 옆에서 모시면서 이로써 넉넉히 위로함이 옳을 것이네.¹⁷⁾

위 서간은 이담명의 셋째 동생인 李龜命(1664~?)에게 보낸 것이다. 이담명은 삼형제 중 장남이고, 둘째 동생인 李漢命(1651년~1687)은 부친인 이원정이 장살 당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다. 이에 이담명이 귀양을 간 1694년은 이구명만이 노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처럼 부친 사건 이후, 다시 서인과의 당쟁으로 장남인 이담명이 유배를 당하자 노친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담명이 이구명에게 생사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모친을 위로할 것을 거듭 부탁한 것은 당시의 불안한 심리를 잘 보여 준다.

다만 이구명에게 보낸 서간에는 노친을 위로하기 위해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지만, 갑술환국으로 인한 유배는 그에게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담명이 유배를 가게 된 계기, 즉 당쟁의 문제와 함께 유배의 시기 또한 부친 이원정과 상당히 유사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서간을 살펴보도록 하자.

보내주신 편지를 받으니 마치 隔世의 소식을 얻은 것 같아 그립고 우러르는 마음 끝에 傾嚮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그대께서 편안하고 넉넉함을 살피니 願養沖適하여 몹시 위로되는 마음 더욱 깊습니다. 담명은 오랑캐 늑은이로 평생을 살아 죄가 쌓였고 어둡고 둔하니, 귀양간 것은 아주 작은 벌에 불과합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땅에 다시 도달하여 몸에 닿는 곳마다 눈을 들어

17)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寄季弟禹瑞 龜命> “侍奉諸況何如? 日夕懸懸. 今朝著忽變, 大臣以下皆削黜, 吾亦似難免於譴罰. 直欲馳還, 與慈顏一訣而來, 而此亦有所不敢, 惟席藁而待之. 君獨在側, 以何辭奉慰耶? 雖然, 吾豈至今生存者哉? 死則死之久矣, 而能復觀天日, 雪冤泉壤, 更有何憾, 但貽老親慈念, 爲戚戚耳. 家中凡事, 惟君在, 須教兒輩孝於親, 友於兄弟, 勿與世人相交遊, 節儉持身, 不貴貨利, 毋墜先世傳來家法, 至幸至幸. 旋念曩時雖切於報雪, 而猶且一以義理自持, 少無一毫枉濫之事, 此事質之鬼神而無疑. 俟來世而可有辭, 若老親憂念不置, 幸從容侍右, 以此寬慰之可也.”

바라보니, 寸心이 불사르는 듯합니다. 천애의 영의에서 늙은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서 이 생애는 다시 보기를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情理가 참혹하고 괴로운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이 다시 누가 있겠습니까?¹⁸⁾

李榮世(1618~1698)에게 보낸 서간을 통해서 유배에 처한 이담명의 심정을 간취할 수 있다. 그는 경신환국 당시 평안도 理山으로 유배를 간 부친을 陪從한 경험이 있었다. 이후 다시 자신이 환국의 대상이 되어서 평안도 昌城으로 유배를 오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점은 창성 유배가 이담명으로 하여금 부친의 비참한 죽음을 상기시키는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땅에 도달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니 마음이 불사르는 듯하다는 이담명의 발화는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창성 유배는 그로 하여금 72세의 고령에 이른 모친과 격절된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남은 생애 다시 보기를 기약할 수 없다는 이담명의 언술은 앞서 이구명에게 다가올 때를 기다릴 것을 주문하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심지어 그는 유배 당시 오랜 황달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¹⁹⁾ 따라서 갑술환국으로 인한 창성 유배는 부친 이원정의 장살 사건과 고령에 이른 노친에 대한 염려, 자신의 오랜 병환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答李參奉 榮世○甲戌> “伏奉下書 如得隔世音息 慕仰之極 傾嚮何量 仍審素履安裕 願養沖適 區區伏慰尤深 聘命夷考生平 罪積冥頑 遷謫特一微罰耳 但恨再到此土 觸境舉目 寸心如焚 天涯嶺外 遠隔老母 人間此生 相見難期 情理慘矜 更誰如我者耶 宿恙之復作 理也亦不足云爾 無由奉對清範 寂寞孤坐 默想疇昔 偏荷眷愛之勤 臨訪之數 不覺神違而心愴”

19)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謫所送兒時 識懷> “甲戌孟夏 余謫昌城 夙頑危喘 更踏此路 去鄉關二千里 而慈親時年七十二 人間此生 相見無期 而宿疚沈綿 委苦牀褥 懷緒如焚 但以長兒琛從來 朝夕不離 賴此遣日 仲秋 荊妻以三從義重 自京啓程而來 故琛爲迎其母行出去 若與其母同還 則不過十數日相別 而中壺復位 以慶設科 科日在近 令渠前進觀光 蓋科慶與常慶有異 爲臣子者 非有大緊故 不宜不赴也 因歸鄉里 省謁老慈 天涯絕域 去留情境之惡 豈有涯哉 悄然旅舍 琛之言貌常在目 所嘗居處飲食之物見之 無不助余之愁 始知父子之情 如是其至也 適是日 先君子初度之辰 而諱日又近臨 以吾思琛之心 思吾先人顧我勤斯 與吾母氏念我不忘 痛迫心懷 竊天極地 血涕識之”

이와 같은 노친과의 관계는 이듬해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담명은 배소에서 노친과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점차 쇠잔해 가는 노친의 기력을 살피면서 남은 생애 동안 재회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불안 심리는 더욱 깊어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²⁰⁾ 게다가 창성의 인근 지역인 평안도 朔州로 함께 유배를 온 陸昌明이 병을 앓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²¹⁾ 그 장례 행렬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²²⁾이 되자 이담명의 자괴감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던 중 <사노친곡 12장>이 창작되었던 1697년 초에는 갑술옥사의 문제가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韓重赫·李時檜 등이 장살 당하는가 하면,²³⁾ 갑술환국 이후 끊임없이 쟁론이 일어났던 張希載의 사형 문제²⁴⁾가 다시금 대두되었던 것이다.²⁵⁾

주지하듯 한중혁과 장희재는 갑술환국의 발발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들이다. 환국 당시 이들에 대한 鞫問이 시작되었다가 4년을 지루하게 이어지던 중, 1697년 윤3월을 기점으로 다시 대두되어 사형을 당하거나 또는 사형

20)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答沈承旨 季良○乙亥> “前月承哀札 阻久戀極之餘 忙披愛紙 宛如面談 奚啻十回莊誦 仍審匪裏哀候支持 是必神明所扶 仰慰倍品 居諸在苒 琴祥忽迫 追惟誰昔 悲淚沾巾 伏惟遠謫天涯 隔離几筵 罔極之情 行路聞之 亦足吞聲 更何言更何言 聘命經年絕域 僅延危喘 亦是異事 而老親氣力 年來日漸衰減 書中縷縷語 每恐生前未及相見 人子至情 當作何懷 日夕煎迫 望雲流涕而已”

21)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答沈承旨 季良○乙亥> “陸台(陸昌明: 필자 주)三日之疾 奄作千古人 啓引在今十一日 生寄死歸常也 在化者何憾 而同讎遐荒 一朝遽哭其亡 慘怛心事 雖欲寬譬而不能得 今承問其不報 停筆無語 無以仰復 祇令人惻傷傷心 竄逐中不欲通書 此台之意 亦以爲然 故參斷問問 是尤無窮之恨”

22)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答沈承旨 季良○乙亥> “但此身徒存軀殼 若其神精銷亡已久 恐難憶一二於千百也 啓引定在今十一日云 凡具皆已措置 而沿路擔丁 亦能一一得之耶 今姑奉還坡村 而襄事則稍待定山耶 抑直向先窆 而能有餘穴可葬耶 所示遷柩還鄉 自是喪事之大節目 似不宜全無告語 依司馬公禮 勿設祖奠 但於朝奠 以今奉柩車還向故山敢告 爲辭而告之 似爲得宜 而又合於有事則告之禮 如何 銘旌示意亦當 正件宜以今銘旌用之 副件乃以曾經官銜書之 於下棺日 別置諸柩上 似或不至大悖 辰洛之後 訪問于故家禮俗而處之如何 相望莽蒼 未由匍匐 過臻于衛 不暇有害者 眞謂此也 臨紙哽咽 滿萬潦草” 이 서간은 陸昌明의 장례 문제로 沈季良과 주고 받은 두 번째 것이다.

23) 『肅宗實錄』, 숙종 23년 3월 15일 병인. <한중혁·최격·이시희가 모두 자복하지 않고 죽다>

24) 『숙종실록』, 숙종 22년 9월 22일 을해. <헌납 흥만기가 장희재·한중혁에 관한 계달 때문에 인피하다>

25) 『숙종실록』, 숙종 23년 윤3월 12일 임진, <이정겸·여필용·김시걸 등이 장희재를 사형할 것을 청하다>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은 배소에 있었던 이담명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유배를 떠난 이후에도 정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던 바,²⁶⁾ 자신의 신변과 직관되는 정치적 사안을 방관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친 이원정의 사례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었던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사노친곡 12장>이 창작되기 시작한 1697년에 이담명은 상당히 불안한 실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친 이원정이 유배를 간 시기를 즈음하여 갑술환국의 관련자들이 사형 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기력이 약해져 가는 노친과 숙병을 앓는 자신의 처지, 함께 유배를 온 목창명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은 해배의 전망을 상실한 체 사친의 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1697년 봄에 마주한 이와 같은 불안한 실존이 사친곡 계열의 국문시가 창작을 추동한 동인이 되었을 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기실 <사노친곡 12장>의 서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단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사친의 정은 이담명이 유배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다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1697년 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칠언 율시이다.

三春恩意若深溟 **三春의 은혜로운 뜻**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一氣流通卽賦形 한 기운으로 흐르고 통하니 곧 형체를 만들었다네.
 引領望鄉雲白白 **목을 늘려 고향을 바라보니 구름만 희디 희고,**
 傷神視膳筍青青 마음 상하여 반찬을 바라보니 죽순만 푸르고 푸르네.
 未成假寐難成夢 **잠시도 잠들 수 없으니 꿈을 꾸기도 어려워,**

26)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謫所送兒時 識懷> “甲戌孟夏 余謫昌城 冥頑危喘 更踏此路 (중략) 但以長兒琛從來 朝夕不離 賴此遣日 仲秋 荊妻以三從義重 自京啓程而來 故琛爲迎其母 行出去 若與其母同還 則不過十數日相別 而中壺(仁顯王后: 필자 주)復位 以慶設科 科日在近 令渠前進觀光 蓋科慶與常慶有異 爲臣子者 非有大繫故 不宜不赴也.” 이담명은 창성에 유배된 상황에서도 인현왕후의 복위 소식을 접하였으며, 장자인李世琛(1671~?)으로 하여금 신하의 자식된 도리로서 과거에 참여할 것을 명하였다.

祇願長程不願醒 단지 원하는 것은 오래토록 술에 취해 깨지 않는 것뿐이라네.
 鶴髮門閭朝復暮 **늙은 어버이 문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기다리신지가,**
如今屈指四周星 오늘에야 손가락 꼽으니²⁷⁾ 사년이나 되었구나.²⁸⁾

이 시는 이담명이 1697년 봄에 창작한 것으로, 갑술환국 당시 함께 평안도로 유배를 간 趙湜(1648~1714)이 보낸 시를 차운한 것이다. 당시 조식은 柳命賢(1643~1703)이 지은 <有懷關西十謫>이란 시를 이담명에게 보냈다. 십적은 이담명과 조식을 포함하여 평안도로 유배를 간 10명의 남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조식은 이담명을 포함하여 당시 유배 중인 인물들에게 이 시를 공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⁹⁾

중요한 점은 이담명은 이 시를 1674년 창성에 있을 당시 차운하면서 사친의 정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운시의 주제와 시상들이 <사노친곡 12장>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것은 먼저 1연에서 孟郊의 <游子吟>에 나오는 시구를 차용하여 사친의 정을 나타내는 점,³⁰⁾ 3연에서 흰 구름

27) 『春秋左氏傳』, <莊公8年>. 齊侯가 葵丘를 수비하는 大夫를 1년 동안 과견할 적에, 그때 마침 오이가 익을 때였으므로 이듬해 오이가 익을 때에 후임자를 보내어 교체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及瓜의 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28) 四周星은 文天祥의 <過零丁洋>의 시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고의 괴로움 만난 것이 경서 한 권에서 시작했는데, 전쟁으로 황폐한 지 4년이 되었구나. 산하는 부서져 바람에 날리는 버들 숲 같고, 기구한 신세의 부침이 비에 맞는 부평초 같아라. 황공탄에서 내 두려웠던 일들을 말하고, 영정양 물 위에서 내 외롭고 쓸쓸함을 한탄하네. 사람이 살면서 예로부터 누군들 죽음이 없었겠는가? 일편단심 굳게 잡아서 靑史를 밝게 비추리라. 辛苦遭逢起一經 干戈落落四周星 山河破碎風漂絮 身世飄搖雨打萍 皇恐灘頭說皇恐 零丁洋裏數零丁 人生自古誰無死 留取丹心照汗青”

29)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次柳士希 命賢 有懷關西十謫 寄趙令匪所韻> “時金監司澗配江界 後移理山 李留守壽徵配龍灣 陸判書昌明配朔州 余謫昌城 趙水原湜配定州 沈監司穰配龜城 權參判煥配鐵山 沈承旨季良配渭原 吳大諫始萬配龍川 李監司雲徵配秦川 卽十謫” <士希 柳命賢 有懷關西十謫에 차운하며, 趙令匪에서 배소에서 보내는 시이다.> 당시 감사 金澗는 강계로 후배가고 뒤이어 이산으로 이배되었다. 유수 李壽徵은 용만에 유배되었고, 판서 陸昌明은 삭주로 유배되었다. 나는 창성으로 유배되었으며, 수원 趙湜은 정주로 유배되었다. 감사 沈穰은 龜城으로 유배되었고, 참판 權煥은 철산으로 유배되었다. 승지 沈季良 渭原으로 유배되었고, 대간 吳始萬은 용주로 유배되었으며, 감사 李雲徵은 태천으로 유배되었으니, 곧 十謫이라 한다.

30) 『古文眞寶』, <游子吟>,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難將寸草心 報得三春暉”

을 보며 고향에 계신 아버이를 생각하는 것, 5연에서 고향과 부모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것, 7연에서 자신이 돌아오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애달프게 읊은 것, 그리고 8연에서 4년의 시간성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물론 한시와 시조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관련 사료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서는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17세기 정국을 주도한 남인 가문의 중심인물로서 李滉(1501~1570)이 제시한 가곡 향유의 비전³¹⁾을 그 또한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性情의 감동을 자극 받아 ‘효’를 주제로 차운시를 남긴 이담명이 미처 수습할 수 없었던 심정을 노래로 불렀던 정황을 상정하는 것 또한 가능해 볼 만한 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노친곡 12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3.1.1. 불안한 실존과 격절성의 강조(1~4수)

봄은 오고 썩 오고 풀은 풀었고 썩 풀으니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같이
어느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뵈오려뇨

<사노친곡 12장:1>

먼저 <사노친곡 12장> 1수는 봄과 풀을 소재로 시작하고 있다. 봄과 풀은 기실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화자의 불안한 실존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장에서 화자는 봄의 도래와 풀의 푸름을 노래하는 바, 이는 자연의 조화로운 운행을 의미한다. 문제는 종장의 발화에 있다. 화자는 봄이 오고 풀이 푸르게 되는 것처럼 자신 또한 노모께 돌아가기를 소원한다. 이는 자연의 조화로운 운행과 대비하여 고향에 계신 노모와 격절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성리학의 구도에서 자연의 순행은 理氣의 조화를 의미하며, 인간에

31) 李滉, 『退溪先生文集』 43권, <陶山十二曲跋>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翫聞世俗之樂 閒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계는 물아일체의 대상으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순정한 자연의 질서에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삶은 사대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표로서 형상화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연의 질서에 대척되는 화자의 형상은 배소에 처한 이담명의 상황이 그만큼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의 작품은 노모와의 격절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지속된다. 그리고 이는 순리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비애의 정서를 수반한다.

親年은 七十五 | 오 嶺路는 數千里오
도라갈 期約은 가디록 아득하다
아마도 좀 업슨 中夜의 눈물계워 설웨라

<사노친곡 12장:2>

중장에서 화자는 노친의 연배와 함께 고향과 배소와의 물리적 거리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자연 섭리와의 대척점으로 형상화한 노모와의 격절성을 시간과 거리라는 물리적 측면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장에서 해배의 전망을 가늠할 수 없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처한 불안한 실존을 드러낸다. 갈수록 아득하다는 화자의 발화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암울하게 형상하는 것이자 노친과의 재회가 그만큼이나 비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수사이다.

따라서 화자를 지배하는 불온한 심정은 중장에 이르러 깊은 밤 동안 잠이 들지 못한 채 비통한 심정에 젖어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며 절정에 이른다. 특히 중장의 모티프는 앞서 이담명의 차운사에서 사친의 정을 나타내기 위한 모티프와 관련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길히 머다 흐다 나면 아니 가라터나
물이 파려흐다 틈면 아니 네라터나 가고 넌 後 | 면 老母歸寧홀 일이다
濫臻于衛언마는 不遐有害라 이를 저퍼호노라

<사노친곡 12장:3>

3수에서는 2수에서 제시한 물리적 거리감을 심리적 거리감으로 치환하며 노친과의 격절성을 더욱 강조한다. 초장과 중장에서 나타난 먼 길과 깊은 물의 장벽에 대한 화자의 시선은 심리적으로 극복 가능한 장애물로서 묘사되고 있는 바, 이는 노모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에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화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종장을 통해서 강조한다. 종장의 ‘邁臻于衛언마는 不遐有害라’는 『詩經』 「國風」 <泉水>의 전고를 차용한 것이다.³²⁾ <천수>는 衛나라 여인이 諸侯에게 시집을 간 후 父母가 죽자 친정으로 돌아가 문안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에 맞지 않을까 염려하여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읊은 내용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천수>의 전고로서 배소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환기하며, 모친과의 격절성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는 3수의 시상을 정계로의 복귀를 암시하는 사례로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³³⁾ 사실 이담명은 목창명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 전고를 활용하였던 정황이 있다.³⁴⁾ 따라서 <천수>의 전고가 배소에 묶여 있는 자신의 불안한 실존을 강조하기 위한 용사로서 기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謫裏光陰은 四年이 넘서 되고

天外家鄉은 萬里에 아득하니 몸이 못 가거든 奇別이나 드르디아

아무리 陟配瞻望을 말라 혼들 어들손가

<사노친곡 12장:4>

배소에서의 격절성과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은 <사노친곡 12장> 4수에 이르러 유배의 시간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한다. 먼저 화자는 초장에

32) 『詩經』 「國風」, <泉水>. “載脂載鞶 還車言邁 邁臻于衛 不遐有害”

33) 권현주, 앞의 논문, 299쪽.

34)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答睦進士 重光○乙亥> “相望莽蒼 末由匍匐 邁臻于衛 不遐有害者 眞謂此也”

서 유배의 시간이 벌써 4년이나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대하는 화자의 압축적 인식은 배소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과 초조함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화자의 심리는 결국 중장에 이르러 ‘天外家鄉’과 ‘萬里에 아득하니’ 등의 발화를 통해 그 거리감이 강조되며,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묘사되기에 이른다. 앞서 3수에서 노친 생각만 하면 먼 길, 깊은 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화자의 의지마저도 좌절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종장에서 노친의 소식만이라도 어떻게든 듣고자 하는 화자의 형상은 비애의 정서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는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시경』 「魏風」, <陟岵>의 전고를 차용³⁵⁾하고 있는 점이다. 부역에 나가며 부모와 이별하는 심정을 노래한 이 작품은 자식이 몸 성히 돌아오길 바라는 노친의 마음을 짐작하는 자식의 시선을 통해서 그 비애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의 시선은 불안한 실존 문제와 노친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자식을 걱정하는 노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근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1~4수가 배소에 처한 자신의 불안한 실존과 노친과의 격절성을 전제로 사친의 정을 주체화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자연의 순리와 대척된 상황에서나마 노친과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해배를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의 불안한 처지에 대한 인식을 거치며 끝내 재회의 의지마저 좌절된 상황으로 묘사된다.

이중 <사노친곡 12장> 4수의 종장에서 자신을 생활을 근심하는 노친을 향한 염려를 드러낸 화자의 태도는 효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듯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곧 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공자의 선언³⁶⁾에 근간한 『예기』의 기록³⁷⁾들은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 생전에

35) 『시경』, 「魏風」, <陟岵>. “저 민둥산에 올라가서 어머니님 계신 곳을 바라본다. 어머니님 어마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아, 내 막내아들이 부역에 나가서 밤낮으로 잠도 자지 못할 터인데, 부디 몸조심해서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라.’ 陟彼岵兮 瞻望母兮 母曰嗟 予季行役 夙夜無寐 上慎旃哉 猶來無棄”

36) 『論語』, <里仁>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37) 『禮記』, <曲禮> “父母存 不許友以死”; 같은 책, <坊記> “父母在 不敢有其身 不敢私其財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후의 시조에는 고통의 노친을 제대로 봉양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사친의 정이 표현될 것으로 보이는데, 5~8수에 차지하는 효의 실천 문제를 향한 화자의 발화는 주목할 만한 양상이다.

3.1.2. 奉親의 시름과 老母에 대한 念慮(5~8수)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難將寸草心 報得三春暉

人情이 懇切하니 鬼神인들 아니 올가

至今의 이 詩 이 뜻은 읊흐소록 畵폐이다

<사노친곡 12장:5>

<사노친곡 12장> 5수의 초장은 <유자음>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노친곡 12장>의 작시 방법과는 또 다른 형태의 구성이다. 이러한 점은 작품의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시적 장치로서 의도된 설정으로 판단되는바, <유자음>의 주제구현방식과 관련하여 화자의 문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유자음>은 멀리 떠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염려와 부모의 마음을 갚을 길 없는 자식의 처연한 심리를 통해 사친의 정을 드러낸 작품이다. 三春으로 대변되는 부모의 마음과 春草로 대변되는 자식의 마음을 대비하여 부모를 떠나는 상황에서 자식이 갖는 사친의 정과 효의 문제를 주제화한 것이다.

다만 화자는 <유자음>의 주제를 내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중장과 중장을 거쳐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 인정의 간절함이 귀신도 감동시킬 지경임을 노래하는 태도는 사친의 정과 효의 문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낸다. 특히 중장에서 ‘지금의’라는 감탄구는 화자가 처한 현 상황의 문제의식을 초점화 하는 것이다. 연로한 모친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 문제마저도 걱정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따른 자괴감은 효의 문제에 대한 화자의 시름을 고조시

示民有上下也”

킨다.

<유자음>의 전고를 활용한 <사노친곡 12장> 5수의 구성은 앞서 이담명의 차운시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문제는 이러한 사친의 정과 봉친의 문제가 결국 노친과의 이별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있다. 이어지는 작품 역시 노친과의 이별과 봉친의 문제를 작품의 문면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력이 아니 느니 片紙를 뒤 傳히리
시름이 ㅁ득ㅎ니 ㅁ을인들 이룰손가
每日의 老親 얼굴이 눈이 森森ㅎ야라

<사노친곡 12장:6>

東山の 올라 보니 故國도 멀서이고
太行이 어드메오 구름이 머흐레라
갈스록 愛日寸心이 如臨深淵ㅎ여라

<사노친곡 12장:7>

<사노친곡 12장> 6수는 기러기의 소식을 매개로 노친과 격리된 상황을 강조하며 시작한다. 고전 문학에서 기러기는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頻出하는 시어이다. 문제는 중장에 나타난 화자의 시름이다. 꿈에서조차 이를 수 없다는 화자의 시름은 앞서 <사노친곡 12장> 2수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2수에서 화자의 시름은 ‘돌아갈 기약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형상화한 것인 반면, 6수의 시름은 기러기가 날 수 없는 즉,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심적 고뇌는 중장 감탄구에 이르러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친을 향한 그리움으로서 강조된다.

7수의 초장과 중장은 노친과 화자의 이별을 나타낸다. 이때 중장의 ‘太行이 어드메오’라는 구절에 대한 이해는 쟁점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太行’을 작가의 고향에 위치한 太行山으로 보거나,³⁸⁾ 白居易의 <太行路>를 차용하여 갑술

한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구절로 해석되었다.³⁹⁾ 그런데 지금까지 시상을 보았을 때, ‘태행’은 『新唐書』에 수록된 <狄仁傑傳>의 전고를 차용하여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⁴⁰⁾

이처럼 부모와 이별한 상황에서 봉친할 수 없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은 종장에서 ‘愛日寸心’, ‘如臨深淵’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전전공공하는 자식의 심정을 나타낸 것인바,⁴¹⁾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과 봉친의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사노친곡 12장> 5수에서 종장의 감탄구가 ‘지금’의 시간성을 강조하였다면, 6수는 ‘매일’이라는 시간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자의 시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음을 뜻하는 의미인데, 이러한 시간성의 문제는 7수에 이르러 ‘갈수록’으로 표현되며 미래진행적인 의미로서 확장된다. 이와 같은 구성은 5~7수 간의 순차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天涯 絶域의 새 허를 네 번 보니

寸草深情은 니르도 말려니와

아마도 鶴髮倚閨를 어이 할야 慰勞 할고

<사노친곡 12장:8>

38) 김상진, 앞의 논문, 128쪽. 김상진은 ‘박을수 편, 『韓國時調大事典』의 기록에 의거하여 작가의 고향을 경북 청송군으로 보고 있는데, 오류로 생각된다. 이담명의 생애는 자료가 발굴될 당시 심재완에 의해 현재 칠곡에 속하는 星州縣임이 소개되었다.(심재완, 앞의 책, 432쪽)

39) 권현주, 앞의 논문, 304쪽.

40) 『新唐書』, <狄仁傑傳> 唐의 狄仁傑은 并州 法曹參軍으로 부임할 당시, 太行山에 올라 남쪽의 흰 구름을 보고, 구름 아래에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라면서 한참 동안 바라보며 상념에 빠지다가, 구름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야 떠나갔다는 고사가 전한다. 본고에서 인용한 전고의 내용은 한국고전종합db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41) 김상진, 앞의 논문, 128쪽. 김상진의 해석은 『法言』과 『시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揚雄, 『法言·孝至』 “事父母自知不足者, 其舜乎 不可得而久者, 事親之謂也. 孝子愛日.”; 『시경』, <小旻> “不敢暴虎 不敢馮河 人知其一 莫知其他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사노친곡 12장> 8수는 배소에 처한 시간에 대해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후 중장에서 寸草를 향한 화자의 시선은 주목할 만하다. ‘풀에 깃든 깊은 마음은 이리다 말러니와’라는 중장의 발화는 배소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특히 화자의 체념적 태도는 종장에 이르러 모친을 향한 근심과 대비되며 작품의 시상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鶴髮倚閨’ 즉 문설주에 기대어 자식이 돌아오길 바라는 노친의 심정과 이를 위로할 길이 없는 처지에 대한 화자의 슬픈 어조는 봉친의 문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배소에 놓인 불안한 실존의 문제를 체념적인 태도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비애의 정서는 끝끝내 놓을 수 없는 사친의 정과 효행의 문제로 초점화되며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히 종장의 ‘아마도’라는 감탄구에 담긴 화자의 불안한 어조는 5~7수를 거치며 고조된 사친의 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사노친곡 12장> 8수는 연시조의 구성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먼저 8수는 <사노친곡 12장> 4수의 초장과 동일한 구성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⁴²⁾ 각각 초장에서 4년의 시간성을 강조하는 구성에 주목한다면, 1~4수와 5~8수 사이에서 반복되는 구성적 맥락을 간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8수 종장의 시어인 ‘鶴髮倚閨’은 주목된다. 앞서 이담명이 작성한 차운시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어이기도 한 ‘학발의려’는 <유자음>의 사상과 맞물려 표현되기도 하였던 바,⁴³⁾ 이는 이담명이 작성한 차운시의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⁴⁴⁾ 따라서 5~8수는 <유자음>의 사상을 전제로 범주화되어 있다

42) 謫裏光陰은 四年이 넘서 되고 / 天外家鄉은 萬리에 아득하니 몸이 못 가거든 奇別이나 드러디야 / 아무리 陟岵瞻望을 말라 흥들 어들손가 <사노친곡 12장> 4

43) 成倪, 『虛白堂集』 <遊子吟> “遊子去古里 天涯行役久 風高霜雪寒 衣破露雙肘 仰念倚閨人 悵恨空搔首 衣中針線縫 皆出慈母手”

44) 三春意若深溟, 一氣流通卽賦形 …… 鶴髮門閨朝復暮, 如今屈指四周星. 三春의 은혜로운 뜻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한 기운으로 흐르고 통하니 곧 형체를 만들었다네. …… 늙은 어버이 문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기다리신지가 / 오늘에야 손가락 꼬이니 사년이나 되었구나.

고 판단된다.

그런데 <유자음>의 중심 소재인 봄과 풀을 향한 시선은 <사노친곡 12장> 1수에서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풀을 향한 화자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경우 <사노친곡 12장> 8수는 5~8수의 소결이자 1~8수의 귀결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사노친곡 12장> 1~8수는 해배를 기대할 수 없는 불안한 실존을 전제로, 노친과 재회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따른 슬픔이 주된 정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시상 및 소재의 측면에서는 1697년 봄에 작성한 차운시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1~8수의 구성은 작가는 1~4, 5~8수에서, 크게는 1~8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장 간의 유기성이 약한 작품일지라도, 거시적 구도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사노친곡 12장>의 남은 작품인 9~12수가 1~8수의 시상과는 이질적인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배의 처지를 수용하고 해배를 기대하는 화자의 태도는 1~8수를 관류하는 화자의 형상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구성적 특성과 그 형성 동인의 문제를 1~8수와 대비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3-2. 藍浦 移配期(9~12수): 解配의 期望과 老母에 대한 慰勞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남포로의 이배에 따른 이담명의 유배 인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숙종 연간에는 연이은 환국으로 인하여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으로 유배를 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던 듯한데, 문제는 1697년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유배인들을 돌보아야 하는 지역민의 고통이 심각해져 갔다는 점이다. 따라서 숙종은 이배를 명하였고,⁴⁵⁾ 그 결과 1697년 윤 3월에 이담명은 전라도 康津縣으로 이배되었다가 다시 충청도 藍浦縣으로 이배되기

45) 『숙종실록』, 숙종 23년 윤3월 3일 계미. <재해를 심하게 당한 곳의 유배 죄인을 참작해서 옮기도록 명하다>

에 이르렀다.⁴⁶⁾ 당시 이담명을 비롯하여 평안도로 이배된 10명의 남인이 모두 이배되었는데, 이는 남인 계열 사대부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⁴⁷⁾

따라서 갑술환국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불온한 조짐이 촉발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함경도 창성에서 충청도 남포로 양이 된 일은 이담명으로 하여금 임금에 은혜에 감격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남포 이배 후 모친과의 상봉마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정축년에 호우(충청북도: 필자 주)로 移配하라는 명이 있었다. 나는 外庭에 있었는데 허겁지겁 북방의 들로 나갔으나 行李가 이미 출발하였다. 겨우 집에 돌아와 아울러 고삿을 채고 함께 나갔다. 마침내 藍關에 이르러 할머니께서 오셔서 만나니 놀라고 기쁜 마음을 말할 수 없었다.⁴⁸⁾

이 자료는 이담명의 조카李世瑗이 쓴 제문이다. 이담명이 남포로 이배된 이후로 가족 간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⁴⁹⁾ 창성 유배기에

46) 『承政院日記』, 숙종 23년 윤 3월 3일 계미, <義禁府에서 李聘命 등을 移配하였다고 아뢰임>; 숙종 23년 윤 3월 15일 을미, <義禁府에서 罪人 李聘命을 藍浦縣으로 量移하였다고 아뢰임>

47) 尹爾厚, 『支菴日記』, 1697년 윤3월 14일, “西北의 흉년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심하여 兩道(평안도와 황해도)에 유배간 사람들을 모두 兩南(호남과 영남)으로 옮길 것이라고 한다. 西北凶歉 比他尤甚 兩道謫居之人盡遷之兩南云”; 같은 책, 1697년 윤3월 23일, “송창우(宋昌佑)가 영암에서 돌아와 윤(尹) 강서(江西)가 답장한 편지를 보았는데, 장희재(張希載)를 안율(按律)하는 일이 정계(停啓)되어 그를 제주에 정배하였고, 서북지방으로 유배간 사람들을 양남(兩南)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 승지 김세익(金世翊)이 상소를 올려 타당하지 않음을 논하자, 서북지방 중에서 재해를 당한 고을에 있는 유배죄인들은 옮기라 명하였다고 한다. 宋昌佑從朗城還 見尹江西答書 張希載按律事停啓 定西濟州 西北謫移兩南事 承旨金世翊論其不便 命就其災邑而移之云” 원문과 번역은 ‘지암일기 디지털 인문학 연구 프로젝트’로 조성된 ‘『지암일기』 번역 db(<http://jiamdiary.info/>)’를 참고하였다.

48)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祭文 從子世瑗> “歲丁丑 有恩移湖右之命 余在外庭 轉赴朔野 行李已發 才到一舍 並轡偕行 遂至藍關 王母來會 悅喜難狀”

49) 남포 이배 후 이담명 모자의 상봉에 대한 기록은 다음에도 확인된다. 이담명, 『정재선생문집』, <祭文 趙宇衡>, “公亦投之西塞矣 泣灑南雲 遠隔慈顏 時耶命耶 此理安在 後又南移 俄蒙恩放 得與母子重逢 莫非公孝感攸致 而餘禍未殄 鬼魔潛遣 公之小妹及季禹珥甫同日而先”

그가 처한 불안한 실존 상태를 고려한다면, 해배의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양이의 결과로 모친과 상봉하게 된 사실은 감격 그 자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포 이배를 기점으로 모친에 대한 사친의 정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유의하면서 다음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有難赦罪難醫疾 爲不忠臣不孝男
蘇齋 이 句 1 률 이제록 불작시면
늬이 아니라 날을 니른 말이로쇠

<사노친곡 12장:9>

먼저 초장은 盧守愼의 <歲暮戲題>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앞서 <사노친곡 12장:5>의 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문제는 노수신의 시구를 통한 화자의 유배 인식에 있는데, 그는 자신이 용서 받기 어려운 죄인이자 불충신이자 불효자임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앞서 <사노친곡 12장> 1~8수에서 유배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일정 정도 층위의 변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의할 점은 9수를 시작으로 임금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작품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데, 문제는 임금에 대한 시선이 일반적인 戀君意識의 발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주의하며 다음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내 罪를 아옵거니 流竄이 薄罰이라
到處 聖恩을 어이흐야 갑스올고
老親고 플터 헤시고 하 그려 마오쇼셔

<사노친곡 12장:10>

10수 역시 ‘죄’와 ‘유배’에 대한 인식을 소재로 초장의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는 9수의 시상에서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배를 薄罰로 자평하는 것은 유배에 대한 인식이 9수의 그것과 동일한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중장에서 화자는 성은에 대한 감격을 강조한다. 이때 到處의 의미가 남포 이배를 시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앞서 유배지에 대한 화자의 시선과는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창성 유배기 동안 이담명이 마주한 현실 공간은 부친의 죽음을 상기시켜 마치 불사르는 듯한 심정을 초래하는 곳이었던 바, 작품 속에 구현된 화자의 시선 또한 자연의 순행을 역행하고 노친에 대한 시름만을 유발하는 곳으로서 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중장에 이르러 노친을 위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서 8수에서 노친을 위로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는 애끓는 심정은 10수에서 전환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공간 인식과 노친을 향한 태도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임금의 은혜와 마주한 상황 설정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이후 해배의 전망을 피력하는 태도를 통해 절정에 달한다.

하늘이 높호시나 느즌 더를 드르시니
日月이 갓가오샤 下土의 비취시니
아마리타 우리 母子之情을 슬피실 제 업스오랴

<사노친곡 12장:11>

가치 울거나 거피 누리거나 燈花 열리거나
...
아마도 반가운 奇別을 어니 旣에 드르려뇨

<사노친곡 12장:12>

먼저 11수에서 화자는 임금의 은혜로 자신의 해배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모친과의 재회가 가능할 날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화자의 발화가 ‘우리’라는 언술을 통해 모친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 태도 역시 앞서 1~8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양상이다.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모친을 상대로 해배의 기대와 위로의 발화를 피력하는 화자의 모습은 12수에 이르러 해배의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을 통해 마무리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사노친곡 12장>은 9수를 기점으로 시상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문면에 노출되는 해배의 기대감은 앞서 살핀 1~8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양상이다. 이러한 시상의 전환이 가능한 동인은 <사노친곡 12장>이 이담명의 유배 생활에 근간한다는 사실을 볼 때, 남포로 양이된 이후 해배의 조짐을 경험하고 모친과 재회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변별적인 시상의 전환이 하나의 연시조 속에서 구성된 이유에 있다. 사실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 또한 바로 <사노친곡 12장>이 장간의 연결성이 약하고 시상의 변화가 비교적 급작스러운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연시조로서 시간적이나 공간적 질서, 또는 논리적 인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적절하다.⁵⁰⁾

하지만 이와 같은 구도는 <사노친곡 12장>의 창작 배경을 창성 유배기로 전제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담명의 유배 생활은 그 자체가 전일하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담명에게는 남포 양이가 창성 유배의 그것과는 변별적이지만, 큰 구도에서 보면 동일한 범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보자.

노친께서 돌아가시고 구름을 바라보는 정회가 다시 西戌(창성: 필자 주)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 봄에 이르러 풀이 푸르러지는 때가 되니, 시름이 곱절이나 되어 스스로 억누를 수가 없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⁵¹⁾

50) 김상진, 앞의 논문, 132~137쪽.

51) 이담명, 『정제선생문집』, <答襄承旨 正徽○戊寅> “前歲復札 至今披玩 以寫我憂 不審伊來 舊愼快祛 新社鼎來 傾向一念 何日忘之 聘命危喘 縱得僅延 老親還歸之後 望雲情緒 便同西戌 逢此春回草綠之辰 一倍愁絕 無以自抑 餘何可諭 自兄言旋 更不聞鄉中是非之爭 是應雅度鎮俗 有足以見信於朋儕間而然 幸須終始留意調停 如何 此事聘命所嘗慨然者 故臨紙輒有云云 幸賜數字 得豁蒙蔽也否”

1698년 裵正徽(1645~1709)에게 보낸 이담명의 서간이다. 남포 이배 후 모친과 상봉하였으나, 모친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니 다시 울울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특히 그는 남포 이배 후 1년이나 지난 상황에도 창성에 있을 때와 동일한 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봄에 풀이 돋아나는 시기를 마주하니 이를 억누르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는 대목이 주목된다. 이는 <사노친곡 12장> 1수의 시상에서 확인했던 부분이다.

이담명의 서간을 통해서 남포 이배는 모친과의 극적인 상봉과 양이의 처리에 따른 해배의 전망을 생산하였지만, 여전히 창성 유배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남포 이배가 이담명의 정치적 위상이 회복된 결과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급작스러운 상황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그에게 창성 유배와 남포 이배 사건이 유배의 범주 속에서 얼마든지 통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현대 연구자의 시각에서는 연시조로서 구성력이 미흡한 작품으로 이해되는 양상이 이담명에게는 하나의 작품 속으로 수렴될 만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은 <사노친곡 12장>이 봄의 도래를 맞이하여 창성에서 남포로 이어지는 유배 체험을 집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내적 동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담명의 <사노친곡 12장>은 유배시가의 사적 전개를 가늠할 수 있는 교량적 작품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조선 후기 유배 문학의 주제적 범주가 확대되어가는 양상과 관련하여 볼 때, 17세기 효의 문제를 다룬 <사노친곡 12장>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다만 이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의 이해는 이담명의 유배 생활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거나, 또는 정치적 층위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때문에 연시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간의 유기성에 대한 문제가 주목되었던 듯하다. 이러한 점은 <사노친곡 12장>의 시가사적 위상에 비해 작품론적 층위에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 <사노친곡 12장>의 구성은 조선 전기 연시조의 구성에 비했을 때, 상당히 느슨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이유는 이 작품이 효를 주제로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완성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친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창성에서 남포로 이어지는 이담명의 유배 체험은 변별적인 층위에 놓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 아래 일련의 시조 작품이 집약적으로 구성되면서 작품 간의 시상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사노친곡 12장>에서 확인되는 시상의 차이는 현대 연구자의 시각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작가인 이담명의 입장에서는 모친을 향한 효의 문제의식 속에서 얼마든지 포괄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이라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연시조의 작시 방법에 대한 당대인의 기대지평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참고문헌

1. 자료

『古文眞寶』,

김홍규 외 6인,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論語』

成俔, 『虛白堂集』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詩經』

『新唐書』

『禮記』

尹爾厚, 『支菴日記』,

李聘命, 『靜齋先生文集』

李滉, 『退溪先生文集』

『春秋左氏傳』

『지암일기』 번역 db(<http://jiamdiary.info/>)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2. 저서 및 논문

권현주, 「靜齋 李聘命의 盛衰와 <思老親曲>12장에 나타난 復歸에 대한 念願」, 『국어교육연구』 73, 국어교육학회, 2020.

김문택, 「숙종 대 이원정의 정치활동과 피화」, 『조선 후기 당쟁과 광주이씨』, 지식산업사, 2011.

(UCI : G704-002032.2009.38.002)

김상진, 「이담명(李聘命)의 < 사노친곡12장(思老親曲12章) > 고찰」, 『韓國 詩歌 研究』 40, 한국시가학회, 2016.

(UCI : G704-001062.2016..37.009)

김용찬, 「안서우의 생애와 시조 창작 배경」, 『한국시가문화연구』 37, 2016.

성기욱, 「申欽 時調의 해석 기반」, 『진단학보』 81, 진단학회, 1996.

심재완, 『慕山沈載完博士文集』 2권, 慕山學術研究所, 2013.

양희철, 「이황의 <도산십이곡>」, 『연시조 작품론 일반』, 도서출판 월인, 2016.

이근호, 「17세기 후반 이담명·이한명의 정치활동과 경세론」, 『조선 후기 당쟁과 광주이씨』, 지식산업사, 2011.

정명세, 「古時調文獻의 研究 : 歷代時調全書 未收錄의 新資料를 對象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Abstract |

The Experience of Exile of Jeongjae(靜齋) Lee Dam-myeong(李聘命) and <Sarochingok 12piece(思老親曲12章)>'s Structural Features

Lee, Seung jun

Chungbuk Univ. Lecturer.

This study reviewed the <Sarochingok 12piece(思老親曲12章)>'s Structural Featur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Exile of Jeongjae(靜齋) Lee Dammyeong(李聘命)

<Sarochingok 12piece> has been understood to be a work tha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ationale is that it is based on filial piety and that it has a weak composition as a Linked Sijo(聯詩調).

However, this view does not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work. Most of all, Lee Dam-myeong's exile regarding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Sarochingok 12piece> was not specifically examined.

The exile of Lee Dam-myeong can be largely divided into Changseong and Nampo. In Changseong, he was in a desperate situation where he could not be expected to be released. However, it was released due to severe drought in Pyeongan and Hamgyeong provinces. He moved to Nampo and was dramatically reunited with his mother.

This aspect can also be seen through the Structural Features of <Sarochingok 12piece>. Based on the perception of exile, the composition of <Sarochingok 12piece> consists of ‘Can’t Meet Mother -> Accepting his situation -> Waiting for a reunion with mother.’

This aspect shows that <Sarochingok 12piece> is loose in binding the chapters, but overall it has a Structural method. And this is the result of Lee Dam-myeong’s exile and mother’s relationship.

Key words : Jeongjae(靜齋) Lee Dam-myeong(李聃命), The Experience of Exile, The Exile Siga(流配詩歌), <Sarochingok 12piece(思老親曲12章)>, Linked Sijo(聯詩調)